

우리 형들

내가 보았을 때, 몇몇
사람들이 우리 형들
처럼

두려움

→ 2개 이야기함
흔히 ① 아닌 경우
경험

삼촌 형

→ 2개 이야기함
흔히 ① 아닌 경우
경험 → 2개 이야기함

20의 future

20의 영상은 무엇일지?

→ Youtube
Channel

→ $\frac{20}{2}$

→ Youtube

PPICC

상회 감동은

서예 감동은

사실애 이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스 "어느" 것이다
고수 "어느" 것이다

▶ 양백하씨

김지민

고정미는 부부한

부끄러움
이
기
을
느
낀
다.
-

그것이 이 책의
시각이라, 나의
사명이라, 나의
꿈
이
다.
-

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는

서로

풍요로움을

그들의

그리고

이상의

시상어 / 아리다
0 / 2년다

利用

厚子

이영생
0 / 0

문 앞 7/2 (424)

* 100 명

20기

* 반역 다시하기

English.

각성이인관 (3)

* 100 명 20기

* 20기 새끼 다시하기

And, This works
those
will be
edited by
Computer.

Do, What You
Can Do
Right Now.

Once you figure out
what you can do
right now, just

Do it RIGHT.

But, if there is
none, or if something
blocks you and you

Can not play with
think that you

Prepare and

study MORE,

which means

Getting more

Experience until

you feel
that you
think you are
ready.

otherwise,
Just move
your Arse.

딱, 한바자국만
앞서고 싶다.

명품도 필요없고

작품도 필요없고

상품도 부질없다.

정품부터 믿고봐야한다.

원 장으로부터.....

개개인이 자신의 고위한
"할 일" 정도는 하나씩
경비해야 한다.

이것은 자위로운 명분이며
이로부터 사회 갈등은
해산되어질 것이다.

"할 일"은, 무기의
선택은, 흔들리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우리는
나이로 충실한, 생애로
충실한, 지역으로 충실한

상황을 할 수 있다.

현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를 믿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며,
그것은 관습에 의한
불합리한 권력구조
때문이다.

인간에 유권자가
있다면 사회에는
관습이 있다.

곧, 막연히 무사하거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수 있다면 생각한다면
이미 많은 관습이 사멸되어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신기한, 재밌는
습문, 권력은, 정문,
기법은, 시스템은 가져오거나
활용하거나 따르더라도
기존의 것은 안고 가야한다.
가드이란 인간은 복단히
움직이고 생각하고, 곧
만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내 머릿속에서
나의 뇌가 문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사회의 문제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고심 할 때의 포즈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인지가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나의 친구를 만날 것이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동기화
됨에 따라 각국의 관습은
점차 희박해져갈 것이다.
동기화라는 것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곧, 변하지 않는 진리는 기본적인,
말과 글의 차이와 색이 다른
공통된 인간의 존엄은
기본적인,

보다 호전적이고 보편화
되어질 수 있는 신박한 습이
필요하다. 기존의 습은
세계화가 맞쿠이 바뀌어나가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위근
주요인으로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확장. 곧 자위도의
확장이다. 그리고 자위도의
확장은 생각의 확장이다.

생생이 확장이다.

다시, 그것은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풀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끈기있게 풀고, 그것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나의 문제를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 문제는 직사하면
되는 것, 그럴 때에야 나의
힘 일을 찾을 수,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소통 시작
이며, ~~이~~ 자연스러운 발연권의
힘들이 ~~이~~ 다. 이제 대해
할 수 있다.

꼭이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은
표출하지 않을 때 막히는
답답과 불편은 특징인물
때문이라 단정짓지 마라.
특정인물 때문이라 하는 것은
남 탓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파멸의 길이다. 곧, 시작은
나 때문으로 가야한다.
그런 때에서야 사회를 탓해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 사회로부터 나의 힘은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때에야 나의 명분은
문명 관계를 유지하며
물리적인 자유도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헤어짐이 아닌 이별이
아닌 것이다

근, 내 머릿 속에 있는
사람이. 네 말과 같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이며 사회의
문제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 알 수 있고
필요한 것 알 수 있는가,
그 차이는 행동의 시간차다.

내 학업이 있다면
부담이 필요한 걸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관계의 확장
자유도의 확장은 이따기 낼 수 있다.

좋아하는 걸 즐긴다면 당장이
호응과 반응이 있을 것이며
필요한 걸 즐긴다면 미래에
호응과 반응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무엇으로 상대의,

세상의, 반응을 끌어낼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는 건 있는가?

없다면, 문제가, 즉긴해야
무엇이 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주고 싶은 것은 상대가 될수있다면,
있는가?

그럼이면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대립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다.

가드
2022 풀이할 수 있다.

2021, 7, 2

최석규

창작노트 총평

~~프로젝트~~ 노트 필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저에게
창작노트 사업은 자칫롭고도 자만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역시~~

재단 사업을 의식하고 평소의 필기법대로
노트를 사용했으~~나~~나, 완벽히 의식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아쉬움이 아주 조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경제적,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업에 참여한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갈등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만간 책이나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약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최옥희 올림.